

2020 국별 진출전략

카자흐스탄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2020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법인세 면제	5
나. 2024년까지 공무원 인력 25%까지 감축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8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10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교역	12
다. 투자진출	14
라. 프로젝트	16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7
가. 교역	17
나. 투자	1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19
III. 진출전략	2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2
3.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7
4. 진출 시 유의사항	30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1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3
3.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4
부 록	
對카자흐스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5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GDP) 임금 상승에 따른 개인소비의 증가, 공공지출 확대, 건설시장 활성화 등으로 2020년 GDP 성장률은 약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인플레이) 현지화 평가절하, 글로벌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 등으로 2020년은 2019년과 비슷한 5.0%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
- (금융) 환율 및 물가가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불확실성 지속
 - 2019년은 탱게화 평가절하에 따른 저축률 하락, 공공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여전히 국가 재정수입의 1/3이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무역) 2019년 상반기 총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 탱게화 절하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및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반면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
 -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며, 주 수입 품목은 자동차, 기계류, 소비재 등임

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전망)	2020년(전망)
GDP	명목 GDP77(10억 달러)	133.7	158.7	168.7	161.4	173.2
	명목 GDP(10억 탱게)	45,740	51,732	58,136	62,180	67,280
	실질 GDP 성장률(%)	0.9	3.9	4.0	4.2	3.4
인구&소득	인구(백만명)	17.99	18.2	18.3	18.6	18.8
	1인당 GDP(PPP기준, 달러)	24,386	25,572	27,458	28,875	29,989
	1인당 GDP(명목기준, 달러)	7,660	8,950	9,400	9,140	9,670
	평균 실업률(%)	5.0	4.9	4.9	4.7	4.7
	소비자 물가 지수(%)	8.5	7.0	5.3	5.1	5.0
환율	1달러당 탱게화(연말기준)	333.28	331.31	375.15	391.30	399.11
	1유로당 탱게화(연말기준)	348.94	395.29	427.52	432.39	458.98
경상수지	무역수지(백만달러)	9,253	16,728	26,532	22,606	22,389

	- 수출(FOB)	35,486	47,301	59,779	58,010	59,501
	- 수입(FOB)	-26,232	-30,573	-34,247	-35,403	-37,112
	서비스 수지(백만 달러)	-3,762	-3,578	-4,674	-5,581	-5,614
	본원소득수지(백만 달러)	-13,450	-18,149	-22,087	-21,273	-22,100
	이전소득수지(백만 달러)	-173	-103	918	394	423
대외부채	대외 부채(백만 달러)	163,715	167,485	158,754	162,077	165,774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29,713	30,747	30,927	30,384	31,816
금리	대출금리(% , 평균)	15.3	14.2	12.5	12.8	13.8
	중앙은행 정책금리(%)	14.31(평균)	10.71(평균)	9.25(평균)	9.25(최신) 2019.11월 기준	9.25

자료 : EIU(2019.10), IMF,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
- 2024년까지 공무원 인력 25% 감축 예정

가. 2020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법인세 면제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0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
- 해당 법령이 발효 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수입이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기대
 - 하지만 담배, 음료 등 정부가 지정한 일부 분야는 여전히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불시단속을 금지
 -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시단속과 감사가 증가했다.”며 사업개발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잦은 감사와 단속은 정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고 밝힘
 -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며, 특히 위생·식품 등 분야에서 관리감독은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라 밝힘

나. 2024년까지 공무원 인력 25%까지 감축

-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인력감축에 대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예정
 - 토카예프 대통령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2024년까지 공공분야 인력을 25%까지 감축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를 남은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국민 1인당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수가 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많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를 육성해야 된다고 수차례 지적

2020년 주요 일정

○ 국제행사

- 중앙아시아 재생에너지 정상 회담(2020년 2월 중, 누르술탄)
- 국제 복제약품 회의(2020년 3월 중, 알마티)
- 제11회 광업&탐사 포럼(2020년 4월 중, 누르술탄)
- 유라시아 언어 및 사회과학 회의(2020년 4월 중, 알마티)
- Heavy Caspian 국제 회의(2020년 4월 중, 알마티)
- 국제 위기 관리 회의(2020년 4월 중, 알마티)
- 국제 형태학 심포지엄(2020년 6월 중, 악토베)
- 카자흐스탄 Mining Week(2020년 6월 중, 카라간다)
- 국제 경제 올림피아드(미정, 누르술탄)

○ 전시회

- Central Asia Houseware(2020년 2~3월 중, 알마티)
- Central Asia Home Textile(2020년 2~3월 중, 알마티)
- AgriTek / FarmTek Astana(2020년 3월 중, 누르술탄)
- ShymkentBuild(2020년 3월 중, 쉴켄트)
- Central Asia Fashion(2020년 3월 중, 알마티)
- Homedeco Kazakhstan(2020년 3월 중, 알마티)
- ITS(Kazakhstan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ies, Security and Communication Exhibition) (2020년 3월 중, 알마티)
- Securika Kazakhstan(2020년 3월 중, 알마티)
- Almaty International Protection, Security, Rescue and Fire Safety Exhibition(2020년 3월 중, 알마티)
- SuluExpo - Almaty(2020년 4월 중, 알마티)
- Aru-Almaty(2020년 4월 중, 알마티)
- Global Oil&Gas Atyrau(2020년 4월 중, 아티라우)
- AtyrauBuild(2020년 4월 중, 아티라우)
- Education and Career(2020년 4월 중, 알마티)
- Kazakhstan International Automotive Expo(2020년 4월 중, 누르술탄)
- KITF(Kazakhstan International Exhibition "Tourism & Travel")(2020년 4월 중, 알마티)
- Automechanika Astana(2020년 4월 중, 누르술탄)
- KIH(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2020년 5월 중, 알마티)
- AstanaBuild(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KIOSH(Kazakhstan Inter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ference and Exhibition) (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MachExpo(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NDT Kazakhstan(Kazakhstan International Non-Destructive Testing and Technical Diagnosis Exhibition) (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Power Astana(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Interfood Astana(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Central Asia Reklam(2020년 5월 중, 알마티)
- KAZPROMO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Promotional Materials and Advertising Souvenirs) (2020년 5월 중, 알마티)
- Kazdent Expo (2020년 5월 중, 알마티)
- KADEX(International Exhibition of Arms and Technologies) (2020년 5월 중, 누르술탄)
- AMM(International Mining and Metallurgy Congress "ASTANA MINING & METALLURGY") (2020년 6월 중, 누르술탄)
- Aqua-Therm Almaty(2020년 9월 중, 알마티)
- KazBuild(2020년 9월 중, 알마티)
- KIOGE(Kazakhstan International "Oil & Gas" Exhibition and Conference) (2020년 9~10월 중, 알마티)
- Central Asian International Mining exploration & Mining equipment Exhibiton (2020년 9월 중, 알마티)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토카예프 대통령 당선, 기존의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
- 2018년 경제성장률 4.0% 달성, 하지만 대외변수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
- 카자흐스탄 정부, 자원 중심 경제에서 탈피 노력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 30년 장기집권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임
 - 2019년 03월 19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사임의사를 공식 발표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조만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으나, 그 시기는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이후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조국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정한 결정이다”라고 발표하며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토카예프가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 밝힘
- 카자흐스탄 역사상 큰 정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혼란은 미미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사임발표 후 환율, 경제 등에 관한 여러 유언비어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정부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임시 차단함으로써 유언비어 확산을 방지
 - 토카예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알마티·누르술탄 등 대도시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으나, 초기 진압에 성공하고 언론 또한 통제됨으로써 큰 사회적인 혼란은 발생하지 않음
 - 환율의 큰 변동 없이 안정화되는 등 경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음
- 토카예프 대통령, 기존의 정치노선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2019년 6월 9일, 70.96%의 득표율로 당선된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존 나자르바예프의 정치 노선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내각교체 없이 국정을 이끌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록 사임했지만, 경찰과 군의 통제권한을 지닌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장이며 집권여당인 누르오타당의 당수직을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저유가 장기화와 러시아의 경기침체,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으로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률은 2016년 0.9% 기록했으나, 2017년 3.9%, 2018년 4.0%로 반등, 2019년은 4.2% 성장 예상
 - 에너지·광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은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에 수출 및 재정수입 감소에 어려움을 겪었으나(2015~2016년), 유가 안정화 및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인해 경기 활성화
 - 카자흐스탄 통계청 10월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3.2%)을 비롯한 건설업(11.8%), 무역(7.6%) 등 비자원 분야 성장이 두드러지나, 아직 자원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환율) 미중 무역 분쟁,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환율은 2019년 10월 기준 1달러당 389텡게까지 상승하며 환율 상승세 지속
 - 10월 말 기준 2019년 전체 평균 환율은 달러당 382.2텡게로 2018년도 평균 환율 344.9텡게 대비 10.81% 상승

2019년 월별 평균 1달러당 텡게 환율

1월 평균	2월 평균	3월 평균	4월 평균	5월 평균	6월 평균	7월 평균	8월 평균	9월 평균	10월 평균
378.37	377.86	377.99	379.54	380.01	382.01	383.78	386.70	387.06	389.24

자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최근 4년 평균 1달러당 텡게 환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환율	전년대비증감률	평균환율	전년대비증감률	평균환율	전년대비증감률	평균환율	전년대비증감률
222.25	24.08%	341.75	53.77%	326.08	-4.8%	344.90	5.77%

자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 (기준금리)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환율상승세에 따른 물가안정화를 위해 2019년 9월 기준금리를 기존 9.0%에서 9.25%로 인상
 -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 수준인 4~6%대에 머물러 있어 2019년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 산업 환경

석유 및 가스 산업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300억 배럴로 세계 12위(점유율 1.8%)

- 원유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전망으로 Kashagan, Karachaganak, Tengiz 등 3대 대형 프로젝트의 생산개시 및 증산을 통해 '20년까지 원유 280만b/d, 가스 4.5Bcf/d 생산 계획
- 세계 6위 규모인 Kashagan 유전은 안정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1,322만 톤의 석유를 생산

광산업

- 구리, 금, 우라늄 등을 생산하는 카자흐스탄은 전체 수출액의 21%가 광물 자원인 만큼 광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특히, 우라늄은 세계 생산량 1위이며, 크롬은 세계 3위, 아연은 8위, 구리는 11위
- 정부는 광산업 현대화, 광산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를 필두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유럽 자본이 이미 진출해 있음. 최근에는 중국계 회사의 진출 증가

농업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에 따르면, 2019년 1~8월 농업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조 351억 텡게(약 52억 2,169만 달러)를 기록
 - 곡물(3.9%), 축산물(4.7%) 생산량 증가
 - 2019년 기준 농업 분야에는 2,630억 텡게(약 6억 7,48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1% 증가한 수치
 - 밀 재배가 활발한 북카자흐스탄주, 아크몰라주, 코스타나이주에 대한 투자가 전체 농업 투자액의 49.3% 차지
-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카자흐스탄 농공단지 개발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중

건설 산업

- 2019년 1~8월 기준, 카자흐스탄 건설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
 -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에 따른 주택건설 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누를리 줄' 신 경제정책에 따라 2017~2019년 동안 시내 도로 개보수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운송 물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추진 중

라. 정책·규제 환경



카자흐스탄-2050 전략

-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제안된 2030 전략을 수정하여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새롭게 제시
 - 카자흐스탄이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과 전략을 제시
- 주요 내용
 - (경제) ① 경제실용주의, ② 신인사 정책, ③ 거시경제정책 현대화, ④ 인프라 개발, ⑤ 국가 자산 관리 체계의 현대화, ⑥ 새로운 천연자원 관계 시스템, ⑦ 산업화 다음 단계를 준비, ⑧ 농업 현대화, ⑨ 수자원 정책 개발 등 추구
 - (기업지원)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① 중소기업 발전, ②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인 Strong business - strong state, ③ 대규모 민영화 및 정부 간섭 축소 등 반영
 - (복지) 사회보장과 개인책임 원칙 추구, (지식기반사회) 지식과 전문기술 기반 사회 구축, (민주주의) 국가 위상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 기본추구, (외교) 국제변화에 대응하는 대외정치 추구
- ‘카자흐스탄-2050’ 전략 아래 카자흐 정부는 인프라 개발계획인 ‘누를리 줄’과 ‘5대 제도개혁 및 100대 규제조치’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안정화 및 규제완화 도모

2 시장 분석

- 중앙아시아의 맹주, 카자흐스탄
- 천연자원의 보고 :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
-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로 대부분의 소비재 수입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중앙아시아의 맹주, 카자흐스탄

- 세계 9위 영토 대국
 - 카자흐스탄은 한반도 면적의 12배, 한국의 27배에 달하는 영토를 보유
 - 1,836만 명의 비교적 적은 인구에 비해 풍부한 농지 및 천연자원 보유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 2015년 1월 1일 출범한 EAEU는 약 1억 8,400만 명의 인구(세계 8위)와 1조 9,140억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자원 부국(석유매장량 세계 2위(14.6%), 가스매장량 세계 1위(18.7%))
-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큰 경제규모
 - 카자흐스탄 GDP 규모는 1,687억 달러로 중앙아시아 내 규모가 가장 크며, EAEU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 다음의 순위임
-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 목표
 - 카자흐스탄은 기존의 발전전략인 2030 전략을 수정하여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새롭게 제시,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이 목표
 -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목표 설정

천연자원의 보고 :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

- 원유 매장량 세계 11위
 - 매장량 300억 배럴
 - 생산량 일일 192.7만 배럴(2018년 기준)
-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6위
 - 매장량 1.1Tcm
 - 생산량 24.4Bcm(2018년 기준)

- 광물자원의 경우, 우라늄, 크롬, 구리, 연/아연, 은, 중석, 망간 등이 세계 10위 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철, 몰리브덴, 티타늄, 니켈 등도 상당한 매장량 보유

카자흐스탄 주요 3대 유전

구 분	참여기업	생산시작	내 용
텅기즈 (Tengiz)	Chevron(미국), ExxonMobil(미국), KazMunaiGaz(카자흐), LukArco(러시아)	1991	• (원유) 2018년 2,860만 톤 생산 - 2022년부터 3,800만 톤 증산 계획 • (천연가스) 2018 390만㎥ 건성가스 생산
카라차가나크 (Karachaganak)	BG(영국), Eni(이탈리아), Chevron(미국), Lukoil(러시아), KazMunaiGaz(카자흐)	1984	• (원유) 2018년 1,220만 톤 생산 - 증산 고려중이나 잠재적 생산량은 불확실 • (천연가스) 2016 300 Bcf 습성가스 생산
카샤간 (Kashagan)	KazMunaiGaz(카자흐), Eni(이탈리아), ExxonMobil(미국), Shell(영국), Total(프랑스), CNPC(중국), Inpex(일본)	2016	• (원유) 2018년 1,322만 톤 • (천연가스) 100 Bcf 이상 생산능력

자료 : EIA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로 소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높은 자원의존도로 인해 제조업 기반 미비, 농산품과 일부 식품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 한국 상품 및 기업에 대한 높은 인지도 및 선호도를 보유하여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 확대

나. 교역



카자흐스탄 수출입 동향

- (전체 교역액) 2019년 1~7월 중 총 교역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1.7% 증가한 538억 1,900만 달러 기록
 - 2018년도 총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947억 달러를 기록
 - 2015~16년 대외교역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 및 천연자원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7년 이후 증가세
- (수출)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도 들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 2018년 수출액은 611억 달러로 국제유가 및 천연자원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동기 대비 26.0% 증가. 하지만 2019년 6월 기준 수출액은 3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

- (수입)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도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도 들어 13.7% 증가한 33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완연한 증가세를 시현

최근 8년간 카자흐스탄의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교 역	1,328 (9.5)	1,335 (0.5)	1,207 (-9.6)	765 (-36.6)	619 (-19.1)	781 (26.0)	947 (21.3)	538 (1.7)
수 출	864 (2.5)	847 (-2.0)	794 (-6.2)	459 (-42.2)	367 (-20.0)	485 (31.8)	611 (26.0)	329 (-3.71)
수 입	463 (25.6)	488 (5.3)	412 (-15.4)	305 (-26.0)	251 (-17.6)	295 (17.5)	336 (13.7)	208 (11.7)

주 :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

대(對)카자흐스탄 주요 수출·수입국

1) 수출국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러시아임
-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가스, 합금철, 우라늄 등 천연자원

2018년 카자흐스탄 수출 점유율 상위 10개국

(단위: 천 달러, %)

NO	국가명	수출액	비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	이탈리아	11,735,376.2	19.3	35%
2	중국	6,272,924.5	10.3	8%
3	네덜란드	6,189,722.6	10.2	30%
4	러시아	5,162,086.8	8.5	11%
5	프랑스	3,839,345.0	6.3	34%
6	대한민국	2,975,985.2	4.9	164%
7	스위스	2,880,925.0	4.7	-7%
8	스페인	1,862,490.9	3.1	29%
9	우즈베키스탄	1,643,314.1	2.7	32%
10	일본	1,502,975.5	2.5	70%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

2) 수입국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중국임
 - 상위 2개국의 점유율이 카자흐스탄 전체 수입 규모의 50% 이상 차지
 - 주요 수입 품목은 의약품, 철금속 파이프,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 (러시아) EAEU 회원국으로 무관세협약, 러시아어권, 동일 인증제도 등의 이점으로 시장을 선점, 주요 수입품은 철 금속제품, 식품,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등
 - (중국) 지리적으로 가까워 타국 대비 물류 부분에서 경쟁력 확보, 주요 수입품은 철 금속제품, 휴대폰, 플라스틱 제품, 의류 등

2018년 카자흐스탄 수입 점유율 상위 10개국

(단위 : 천 달러, %)

NO	국가명	수입액	비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	러시아	12,392,136.9	38.1	6%
2	중국	5,384,165.1	16.5	15%
3	독일	1,645,871.1	5.1	11%
4	이탈리아	1,496,649.6	4.6	58%
5	미국	1,289,012.1	4.0	4%
6	대한민국	922,516.9	2.8	63%
7	우즈베키스탄	844,841.3	2.6	15%
8	프랑스	661,282.9	2.0	24%
9	터키	654,979.2	2.0	-10%
10	벨라루스	593,213.1	1.8	12%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

수입 규제, 비관세장벽 등

- 별도의 수입규제는 없으나, 현지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입시장 위축 지속
 - 주요 바이어들은 품질보다 가격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며 다품종 소량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텅게화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여건이 악화되어 비교적 저렴한 러시아, 중국제 제품을 찾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외화의 반출과 반입이 자유로운 편이며, 2019년 기준 대(對)한국 수출규제품목 또한 없음

다. 투자진출

- 2018년 대(對)카자흐스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
- 2019년 상반기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 등으로 투자액 총액은 121억 달러
 - 2018년 : 광업(원유·가스), 제조업, 도매·소매업 순

최근 7년간 카자흐스탄 투자 동향

(단위 : 억 달러,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 투자액	240 (-16.6)	238 (-1.2)	153 (-35.4)	213 (-39.0)	209 (-1.9)	242 (15.7)	121 (-50.0)

자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

- (러시아) 카자흐스탄 4대 투자국으로서 2019년 기준 약 6,274개의 합작 기업이 활동 중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러시아어가 통용되는 이점을 활용, 다양한 산업에 진출 중
- (네덜란드) Shell, CB&I, Witteveen&Bos, Van Oord, Philips 등 우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19년 기준 708개의 합작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 중이며, 카자흐스탄 최대투자국으로 광산업에 투자 집중
- (미국) 2019년 1월 기준, 총 368개의 합작 회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광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뿐만 아니라 전문기구·협회·조합 활동 등 다양
- (중국) 대부분의 투자액은 원유·가스 생산 및 운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934개의 합작 기업이 활동 중으로 SINOTEC, CITIC, China Investment Corp., CNPC,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Bank of China 등이 대표적

최근 3년간 국가별 카자흐스탄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합 계	21,367	-	20,960	-	24,263	-
네덜란드	7,655	1	5,998	1	7,350	1
미 국	3,423	2	3,712	2	5,342	2
스위스	2,589	3	2,934	3	2,540	3
러시아	867	6	1,230	4	1,499	4
중 국	960	5	998.7	6	1,476	5
벨기에	710	7	1,048	5	1,049	6
프랑스	1,137	4	804	7	916	7
영 국	684	8	601	8	593	8
한 국	358	10	495	9	478	9
일 본	470	9	357	12	402	11

자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동 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라. 프로젝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동향

- 카자흐스탄은 농업, 교통 인프라,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이 높으며, 정부 주도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 중
- EBRD, ADB 등의 다자개발은행도 카자흐스탄에 많은 투자 중
- (ADB) 2014년 ADB 가입 이후, 카자흐스탄은 농업, 관개, 교육, 금융, 교통, 상하수도 시스템 등 분야에서 정부 차관(Sovereign Loan) 및 비정부 차관(Non-Sovereign Loan) 형식으로 기술지원을 받음. ADB는 2019년에 4,331만 달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ADB의 New Partnership Strategy(2017~2021)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함께 우선순위의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 및 민간 운영 촉진, 지역 간 협력 및 통합 확대 내용을 담고 있음
 - ADB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교통 인프라 지원, 공공 부문에서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 경제 발전 분야에서의 국제 경험 및 지식 공유 등임
 - ADB &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목록 : <https://bit.ly/2VtisDp>
- (EBRD) 카자흐스탄은 EBRD로부터 지난 20여 년간 약 65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는 등 큰 수혜국 중 하나
 - EBRD는 2019년에만 6억 6,283만 달러를 투자하며 카자흐스탄 내 최대 단일 투자자로 부상
 -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인 녹색 에너지 전략을 발표, 동 전략의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EBRD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농업, 상하수도시설, 폐기물 처리, 교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
 - EBRD &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목록 : <https://bit.ly/33sh335>
- (AIIB) AIIB가 2019년 카자흐스탄에 지원한 금액은 없음
 - AIIB &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목록 : <https://goo.gl/Kxhs2b>

가. 교역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수출입 동향

- 한-카 교역액은 1992년 1,100만 달러로 시작, 2019년 8월 기준 26.7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 (2019년 주요 수출품목) 화학기계, 승용차, 건설 중장비, 화장품, 정밀 기계 등
 - (2019년 주요 수입품목) 원유, 우라늄, 합금철, 금속광물 등
- 유가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2015년 교역액은 7.6억 달러, 2016년은 6.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반등하여 지속적으로 교역 증가
-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60위 수출국이자 42위 수입국
 - 수출액 7억 9,781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
주요 수출품목 : 화학기계, 승용차, 기초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화장품 등
 - 수입액 13억 6,21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
주요 수입품목 : 원유, 광물성연료, 우라늄, 비철금속제품, 축산물 등

최근 5년간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의 수출입 동향

(단위 : 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90,695 (-15.6)	454,47 (-49.9)	364,12 (-19.9)	532,72 (46.3)	79,781 (49.3)
수 입	56,077 (125.1)	30,502 (-45.6)	28,529 (-6.5)	99,834 (249.9)	136,210 (36.4)
무역수지	34,618 (-58.1)	14,944 (-56.8)	7,883 (-47.2)	-46,561 (-690.6)	-56,429 (-21.2)
교역규모	146,772 (10.9)	75,950 (-48.3)	64,942 (-14.5)	153,106 (135.7)	215,992 (41.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괄호 내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

나. 투자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 동향

-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액은 2014년 이래 계속 감소했으나, 2018년은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

- 전반적인 투자규모가 줄었으며, 특히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분야 투자 감소가 주원인
- 2018년 BNK 캐피탈의 카자흐스탄 진출로 금융업 투자액이 증가했지만, 이를 제외한 제조업, 건설업 등은 2014년 이전보다 투자규모 감소
- o 2014년 6월 한-카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무비자 협정은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됨

최근 5년간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 동향

(단위 : 천, 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 계 (‘91~ 최근)
신건수	61	80	44	34	49	953
투자액	15,900	7,000	2,100	700	1,500	261,4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

최근 5년간 업종별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업, 임업 및 어업	3	5	1	2	1
제조업	84	20	1	1	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1	38	-	-	-
건설업	1	1	15	-	4
도매 및 소매업	-	1	-	1	-
금융 및 보험업	-	4	5	-	5
부동산업	10	-	-	3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	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

o 주요 진출기업 현황

구 분	기업명
상 사	현대중합상사(지사), 한화(지사), 포스코인터내셔널(지사), 삼성전자(법인) 등
제 조	LG전자(법인) 등
금 용	신한은행(법인), 신한파이낸스(법인), BNK 캐피탈(법인), KB국민은행(법인) 등
건설사	동일토건(법인), 우림건설(법인) 등
유 통	롯데제과(법인) 등
운 송	아시아나(지사), 우진글로벌(법인) 등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공사,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한국기업의 투자 성공·실패 사례

구 분	내 용	시사점
롯데제과 (성공)	2013년 현지 제과업체인 라하트사 주식 인수를 통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2015년 공장라인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개시하는 등 시장점유율을 서서히 높여가는 중 2019년 기준 라하트 주식의 95.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1위 제과업체로 부상	현지기업 인수를 통한 시장 확대 성공 사례
신한은행 (성공)	- 은행업 진출 인허가 획득(2008년) - 지점영업 개시(2009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첫 인허가 승인 사례
동일토건 (성공)	- 카자흐스탄에 '하이빌 아스타나 주거복합타운'을 포함한 8,000가구를 보급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출 -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선보인 한국형 아파트가 현지인 사이에 인기를 끌며 시장을 확대 중	한국형 아파트 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에 성공한 투자진출 사례

다. 주요 협력 의제

프로젝트 협력

- 카자흐스탄 정부는 '누를리 졸' 인프라 개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운송·물류 인프라, 산업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난방·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사회인프라, 중소기업지원 등 7개 분야 개발을 추진
- 기 진행 혹은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현지 입찰시장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존 우리기업의 카자 호스탄 내 프로젝트 실적을 활용한 기술력 홍보 및 신뢰성 확보 노력 지속

한-카자흐스탄 정상외교 연계 경제협력

- 2019년 4월,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한-카자흐스탄 정상외교의 결과로 'Fresh Wind 2019-2022'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채택됨
 - Fresh Wind란 경제, 무역,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한-카자흐 양국 간 체결된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PPP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에너지, ICT, 보건의료, 농업, 교통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체결 혹은 추진 중

의료분야 협력

- 단순 의료관광 위주에서 원격 의료상담, 의료컨설팅, 원내원(현지 병원 내 진료과 설치의 형태) 진출, 한국형 병원 진출 등의 형태로 의료분야 협력 확대 필요

- 카자흐스탄은 의료 환경 수준이 열악하여 한국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최근 3년간 국내병원의 카자흐 진출사례			
구분	강남세브란스	청연한방병원	MPK
연도	'18.11	'18.3	'18.10
규모	400 s/m	150 s/m	1,400 s/m
특징	원내원, 암센터, 환자송출연계	원내원, 한방병원	민영독립병원, 12개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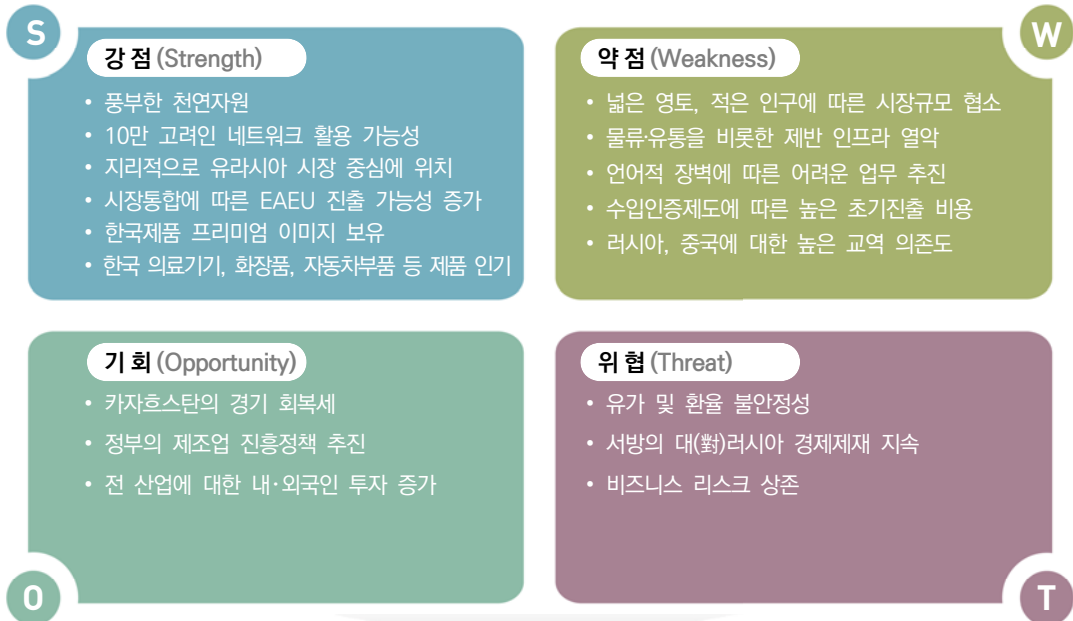
자료 : KOTRA 알마티무역관

Ⅲ. 진출전략

- ※ 카자흐스탄의 대내·대외적 장점을 활용한 투자진출
- ※ 한국제품 프리미엄 이미지를 활용한 소비재·유통업 진출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카자흐스탄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유통 분야 진출확대 • EAEU 주요 거점도시 대상 마케팅 사업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 틈새시장, 신성장시장 발굴 및 적극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 소량 다품종 선호, 수요 다변화에 따른 시장 요구에 부응
WT 전략 (위험 대응)	• High Risk, High Return 시장임을 감안하고, 환율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환리스크 헷징을 위한 전략적 분석 필요

진출전략
한류 활용 마케팅 확대 및 EAEU 거점도시 진출 시장규모 확대 가능성 높은 신규 유망 분야 및 캐시카우 품목 발굴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소량 수출 확대 현지 법령, 정책, 시장정보 조사 선행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 수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은 규모는 6억 9천만 달러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분이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되며, 한국에서는 연간 2,269만 달러 규모가 수입됨(2018년 기준)
- 우리나라의 대(對)카자흐스탄 수출 중 화장품은 2018년 기준 6위를 기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
 -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천연 보습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등 기능성이 포함된 제품을 선호함
 - 최근에는 샴푸, 에센스, 린스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헤어케어 제품 인기도 상승

진출전략 및 트렌드

- 카자흐스탄으로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A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제품일 경우 발급에 약 1주일 소요
 - 하지만 의료목적의 화장품이나 화이트닝 등 특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증서 발급에 최대 3개월 소요
- 유럽, 터키, 러시아 등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타 제품과 차별성 및 합리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다면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매할 의향이 있음
- 카자흐스탄 내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최근에는 화장품 유통업체에서 뷰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목
 - Kpop, Kdrama 등 한류 붐에 힘입어 한국 뷰티제품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SNS·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마케팅 고려 제안

2-2. (의료기기·의약품) 등록/인증 사전 준비 및 공공조달 입찰 관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력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추진, MDB 은행의 예산지원 등
 - 의료기관의 최신식 진단 및 치료 설비 조성을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됨
- 2018년 의료기기·의약품 시장규모 약 9.7억 달러
 - 의료기기 1.9억 달러, 의약품 7.8억 달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업 기반 시설 미비로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고정밀·고사양 제품의 경우 주로 유럽,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저가 장비 및 의료 소모품의 경우 중국 제품이 주를 이룸
- 의약품(Hs 3004)은 카자흐스탄 2위 수입품목으로 연 7.8억 달러 수입
 -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대부분 유럽·러시아산 의약품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카자흐스탄 내 의료기기·의약품 판매를 위해서는 등록/인증 절차 필수
 - 등록/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카자흐어로만 가능하므로 러시아어 가능 인력이 없을 경우 에이전트 이용 추천
- 현지 의료기기·의약품 시장은 정부의 공공조달을 통해 진출할 기회도 있으므로 관련 공공조달 입찰에 관심 필요
 - 한국기업 단독참여는 불가하기에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공공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단, 이미 낙찰자가 정해져 있어 절차적인 차원에서 형식적인 입찰이 게재되는 경우도 많음

2-3. (농업) 집약적 영농기술 수출, 축산업 투자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기준 농업 분야는 카자흐스탄 전체 GDP 중 약 5% 차지
- 최근 현지 생산 농산물의 약 75%가 가공 없이 원재료로 판매되며, 일부 가공제품은 수입
- 중국, 러시아 등 배후 소비시장을 목표로 돼지, 소, 양 사육 증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7~2021년 카자흐스탄 농공단지 개발 국가 프로그램 마련
 - (예산) 2017~2021년 3조 1,198억 텡게(약 86억 달러) 투입 예정
 - (과제) ① 중소기업의 농업 분야 종사, ② 내수 진작 및 현지 생산제품의 수출 잠재력 개발, ③ 국가 보조금의 효과적 활용, ④ 수자원의 효과적 활용, ⑤ 토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⑥ 농기계 및 화학제품 확보, ⑦ 무역·물류 인프라 개발, ⑧ 농공단지 대상 과학기술, 인적 자원, 정보 마케팅 지원
 - (상세과제) 2021년까지 ① 축산업 생산성 58% 증가, ② 작물 재배 분야 생산성 40% 증가, ③ 식료품 수출 6억 달러 증가, ④ 식료품 수입 4억 달러 감소, ⑤ 식료품 도매 무역 2015년 대비 29% 증가 등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농기계, 비료, 스마트팜 기자재 등
 - 카자흐스탄은 넓은 농지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이 낮고, 상당수의 농기계가 낙후되어 있으며, 비료 사용량도 많지 않아 효율적인 작물 수확에 한계
 - 최근 정부 주도로 스마트팜 시범단지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으며, 토마토, 딸기를 스마트팜에서 재배하여 유통하는 농가가 등장
- 중국, 러시아 소비시장을 목표로 한 축산업 투자진출
 - 최근 중국 내 계속하여 고기 대란이 발생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인근 지역인 카자흐스탄에 육류 생산기지를 만들어 중국시장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 러시아 시장의 유망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저렴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육류 공장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들도 증가 추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 체결된 무관세협정은 투자 이점으로 작용
 - 육류 가공 기계, 축산 스마트팜 시스템 등이 당분간 유망할 것으로 예상
-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협업 등
 -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해 국가프로그램을 제정하고 관련 기업에 예산 지원 중
 - 실질적으로 국고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국립 농업연구소, 국립대학교, 에이전트 등 발굴 및 협업 필요

2-4. 자동차부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애프터마켓 시장이 발달하여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 등록 차량 700만 대 중 50%가 2005년 이전 제조 차량으로 자동차 부품교체 및 수리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 성장으로 생산이 증가하면서 부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주요 자동차 조립업체인 Asia avto, Saryarkaavtoprom의 생산 확대로 자동차부품 수입도 증가
 - 카자흐스탄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 현지 생산 자동차에 대한 대출 지원 등으로 자동차 구매량이 증가 추세
 - 한국에서는 연 2,420만 달러의 완성차 수입
-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부품교체 및 수리 수요 증가
 -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 등록 차량 약 700만 대 중 50%가 2005년 이전 제조차량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신차보다는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여 애프터마켓 시장이 발달했고, 자동차부품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UAE, 한국 등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제동장치, 자동차 휠, 기타 부분품 등(HS Code 870830, 870829, 870870)에 대한 수요가 높음
- 현지 파트너사를 발굴하여 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EAC 인증을 비롯한 세금 납부 등은 통상적으로 현지 업체가 담당하고 있음. 인증 획득 등 서류 준비기간은 약 1~6개월 소요

3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투자진출) EAEU를 활용한 투자진출 다각화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제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제조업 투자 진출
-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EAEU 출범으로 상품에서 자본, 노동력으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 가능
 - 산업 특성, 진출여건 등을 고려한 진출지역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활용 가능성도 확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은 자원 위주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비(非)자원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제조업 분야 국가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관련 정책인 ‘비즈니스 로드맵-2025’에 연간 8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정부는 최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게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국가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전적으로 지원 중
 - 가공업·석유화학제품·자동차·통신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에 투자 진출하여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로 시장 확대 가능
- 러시아·CIS 시장을 목표로 한 농업, 스마트팜 진출
 - 러시아 지역에서 겨울철 토마토, 딸기, 오이 등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 해당 분야 투자진출 후 주변 CIS 시장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자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온실재배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업기업 창업 시 여러 보조금을 지원 중

3-2. (프로젝트) 양자·다자개발기구 프로젝트 참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카자흐스탄 정부는 '누를리 줄 인프라 개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운송·물류, 산업, 에너지 인프라, 난방·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사회 인프라, 중소기업 지원 등 7개 분야 개발 추진
- 한-카자흐 정상외교 이후, 양국 경험프로그램인 '프레쉬 윈드(Fresh Wind)'가 채택되어 에너지, 운송, 의료보건 분야 프로젝트에서 협업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카자흐스탄은 IFC, EBRD, ADB, IsDB(이슬람개발은행), KDB(카자흐스탄 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정부 입찰 프로젝트뿐 아니라 민간 부문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양자·다자개발기구에 공지되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 IFC, EBRD, ADB, IsDB, KDB 등에서 금융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관심 프로젝트가 공지되면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입찰 참가조건, 제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
- 한국기업은 도로건설, 철도차량 및 시스템 공급, 발전소 건설, 전력망 공급 등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ICT, 수처리, 폐기물 발전사업 등에 경쟁력이 있음
 - * 예시) SK건설, 알마티외곽순환도로 공사 낙찰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이중 회계장부 등)
■ 탕계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자 유동성 악화,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사례 증가 - 최근 2년 간 무역관에 접수된 채무 불이행 사례는 3건으로 그 금액은 210,143달러에 달함 - 무역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대금결제 불이행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대응전략) ☞ 무역보험 가입 등 바이어의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에 대비 필요 ☞ 선수금 조건 등을 대금결제 조항에 추가하여 사전 예방	■ 세무조사용 재무제표와 자체관리용 재무제표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 - 세무조사용과 자체관리용 재무제표가 이중 관리되고 있어 실질을 파악하기 곤란 - 카자흐스탄 정부는 조세 사면 제도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투명한 장부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음 ■ (대응전략) ☞ 보수적인 접근 및 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
지나친 관료주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업무 차질
■ 간단한 서류에도 다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중간결재자 휴가 시 승인 지연 ■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 - 국내 A사는 카자흐스탄 아파트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 하였으나, 당국에서 인허가를 지연하여 차질 발생 ■ (대응전략) ☞ 업무 진행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체크 필요	■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카자흐스탄 바이어는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린 편이며, 영어 메일에는 답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정부와 거래 시, 제품 제안서를 러시아어 혹은 카자흐어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음 ■ (대응전략) ☞ 러시아어 가능 인재 채용, 카탈로그 번역본 구비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6.5
	수입액('18/백만 달러)	57.3	대한수입액('18/US\$백만)	20.0
화장품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크림(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은 약 9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생산함 ○ 카자흐스탄 경기침체로 인해 화장품 전체 수입은 줄었으나 한국산 수입은 증가추세 ○ 유럽산에 비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많음		
	시장동향	○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스킨케어 화장품 ○ 전반적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수요가 높은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화장품(70.3%)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음. 특히 마스크팩 및 BB·CC 크림에 대한 수요가 많았음		
	경쟁동향	○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산 브랜드는 대부분 카자흐스탄에서 구매 가능할 정도로 많은 유럽제품이 진출하였음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로는 L'Oreal(프랑스), Guerlain(프랑스), Nuxe(프랑스),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는 Dior(프랑스), LANCOME(프랑스), Maybelline(미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경쟁업체는 French house, Beautymania, Yessey, Mon Amie로, 주로 유럽산 외국제품을 취급하는 화장품 체인점임		
	진출방안	○ 카자흐스탄 현지 트렌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초기 산업발전 시기에는 색조 화장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기초 및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		
품목명 2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7
	수입액('17/백만 달러)	196	대한수입액('17/US\$백만)	13
의료기기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외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력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추진으로 의료기관의 최신식 진단 및 치료 설비 조성을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됨		
	시장동향	○ 실제로 카자흐스탄 전역에 외국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시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의료기기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경쟁동향	○ 주요 경쟁업체는 Draeger(독일), Philips(네덜란드), Medtronic(스위스), General Electric(미국), MICRO DENTA(이탈리아), Toshiba Medical Systems(일본), Medonica(한국) 등임		
	진출방안	○ 카자흐스탄 시장 내 주요 의료기기는 초음파기계, X-RAY, CT 촬영기, MRI 같은 진단기기임 ○ 카자흐스탄 내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수출을 위해서는 등록/인증 절차 필수 - 등록/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카자흐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가능 인력이 없을 경우 에이전트 이용 추천		

품목명 3	HS Code	9021.29	수입관세율(%)	0%
의약품 : 임플란트 (Dental Fittings;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수입액('18/백만 달러)	1.8	대한수입액('18/US\$백만)	1.8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의 치과 시장이 성장 중이며, 특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임플란트는 치과 시장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7% 성장세		
	시장동향	○ 2016년 경기침체로 다소 주춤했으나 임플란트 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 - 그중 한국 수입규모가 매년 50%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차지		
	경쟁동향	○ 주요 경쟁업체는 Nobel(미국), MIS, Alpha BIO, ARDS, Implay (이스라엘), Tree Dental(중국)이며 한국의 오스템 임플란트 및 NeoBiothech도 성공적으로 현지 진출		
	진출방안	○ 카자흐스탄 내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수출을 위해서는 등록/인증 절차 필수 - 등록/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카자흐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가능 인력이 없을 경우 에이전트 이용 추천		
품목명 4	HS Code	3402	수입관세율(%)	5~8.2
세제류 : 유기계면활성제 (비누는 제외),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	수입액('18/백만 달러)	38	대한수입액('18/US\$백만)	0.97
	선정사유	○ LG의 Tech 가루세제와 Elastine 샴푸와 같은 한국산 생활용품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생활용품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 현지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의 시장규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매년 2천만 달러 이상 수입		
	경쟁동향	○ 주요 경쟁 브랜드는 P&G Professional, Johnson&Johnson, GSK, Kalina(러시아), Schwarzkopf, Markell(벨라루스)		
	진출방안	○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한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틈새시장 진출 - 현지 유통되는 세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거나 다량 수입으로 인한 가격인하 제품이므로 일반 한국산 세제는 경쟁력이 없음 ○ 현지 진출 대규모 유통업체 접촉을 통해 제품 입점 추진		
품목명 5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5
자동차부품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	수입액('17/백만 달러)	151	대한수입액('17/US\$백만)	13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자동차부품 시장은 주로 수입에 의존 ○ 카자흐스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자동차부품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 ○ 한국산 제품은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선호		
	시장동향	○ '18년 카자흐스탄 자동차부품 시장규모는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 ○ 카자흐스탄 등록 차량 700만 대 중 64% 이상이 연식 10년 이상의 차량임 - 10년 이상 된 자동차부품 교체 및 수리 수요가 많음		
	경쟁동향	○ 자동차부품 시장은 취급하는 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함 - 자동차 브랜드별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해당 부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브랜드의 정품 부품 및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주요 경쟁업체는 한국의 부품생산업체, 중국 업체임		

	진출방안	○ 카자흐스탄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판매되고 있고, 기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진출하기 좋은 분야임 - 자동차부품 시장 진입에는 최소 3~9개월 걸리며, 주로 마케팅 활동과 잠재 파트너를 찾는 데 소요됨 ○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 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유통업체를 찾아 제품을 수출하는 것임 - 현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시회 또는 국내 각 기관에서 파견하는 무역사절단 참가를 통해 현지 자동차부품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음
--	------	--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첨부

의료	선정사유	○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력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추진 중 ○ 카자흐스탄 내 미용의학 및 성형수술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음
	시장동향	○ 열악한 현지 의료환경으로 부유층은 주로 외국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 - 특히 심장외과, 신경외과, 종양학 부문 ○ 의료기관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 1차 진료의 경우, 지방 의료인의 수가 도시의 20% 수준 ○ 2018년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시스템 도입
	경쟁동향	○ 카자흐스탄의 의료 관광국은 독일, 이스라엘, 싱가포르, 터키이고, 한국을 찾는 환자 수도 많음
	진출방안	○ 외국 의사면허증은 불인정하며, 현지에서 의사 활동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한국인 의사 채용 시 현지 의사를 채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첨부 3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인구조사	2020	-
카자흐스탄 의회 선거	2021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관광전시회(KITF)	2020.4월	-
카자흐스탄 알마티 의료보건 전시회(KIHE)	2020.5월	-
카자흐스탄 알마티 미용전시회(Central Asia Beauty)	2020.9월	-
카자흐스탄 알마티 건축자재전시회(KazBuild)	2020.9월	-
카자흐스탄 광업 전시회(Central Asia Mining World)	2020.9월	-

I. 카자흐스탄의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 비전

가. 카자흐스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잠재력

-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
 - * 남북한과 중국,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
- 원유·천연가스·광물 등 주요 천연자원 매장이 풍부한 자원보유국
- 산업다각화를 위한 제조업·신산업 육성 수요 상존
 - * 원자재 의존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업·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지속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 * EA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 등 가입국에 대한 상호 무관세 교역 및 인력 이동 가능

 주요국의 대(對)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

- 중앙아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기반으로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중앙아 각 국가와의 협력 확대

주요국의 대(對)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의 일부로 지역 내 인프라 건설 인프라 적극 참여 • 카자흐스탄 내 주요 원유광구의 지분확보로 원유공급 안정화 추진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경제특구에 민간기업 진출활성화로 제조업 협력 강화
러시아	•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의 통용, EAEU의 장점을 활용, 자원·에너지·무역·서비스 등 전 분야에 투자 • Gazprom, Lukoil 등 러시아 기업들은 다운스트림 분야에 투자진출 활발 • 카자흐스탄 등 주요국은 EAEU 가입국으로 러시아 경제권 영향

 카자흐스탄 시장의 기회와 변화요인

-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세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EIU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14~2016년의 경기침체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예상 경제 성장률인 1.8%를 상회

- 경기회복에 따라 카자흐스탄 소비심리 개선기대 등 전반적인 소비시장 개선세 지속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심화와 가입국 확대를 통한 러시아 소비시장 통합 및 의존 가속화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 내 EAEU 가입국의 경우, 러시아 시장에 대한 통합 과정 지속과 협력강화
- * EAEU 가입 이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시장의 연동성 확대 및 키르기스인의 러시아에 대한 노동이주 증가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對)러시아 의존

항목	교역	직접투자	노동이주/송금
내용	• 수출입에서 러시아 비중 여전히 높음 •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존	• 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한 주요국 산업연계 지속 • 러시아 FDI 비중 높음	• 일부 국가 송금의존구조 고착화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내륙 거점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지로서 카자흐스탄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 부각
 - 중국 일대일로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자원보유국으로 주목받던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대륙 물류 통과국으로서 주목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에서 북방 물류협력의 주요 협력국



한-카자흐스탄, 신(新) 경제협력 분야 발굴 필요

- 1937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 * 스탈린 집권시기 약 172,000명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이주
- 1990년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주요 국가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시작
 - * 대우자동차의 우즈베키스탄 조립공장 설립, LG전자의 카자흐스탄 생산 공장 구축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경제이행기에 한국 대기업의 진출 시작
- 2000년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활성화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의 본격적인 진출·투자 활성화
 - * 원자재 수출국인 중앙아의 경기활성화에 따라, 건설·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진출 활발
- 한-중앙아 경제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영역 창출이 주요 과제
 - * 양국 경제관계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외생변수에 취약한 교역구조의 지속과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의 투자행태는 문제점으로 평가

한-중앙아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중앙아시아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 '17년 중앙아 3개국의 주요국 수입액은 미국으로부터 약 17억 불, 중국 78억 불, 일본 6억 불, 한국 19억 불 규모
- '16~'17년도 증가율로 비교 시, 미국 약 -1.7%, 중국 30%, 일본 -45%, 한국 7.7% 로 단기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증가세임(출처 : ITC Trade Map)

2. 대(對)중앙아시아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7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일반차량(87)	보일러·기계류(84)	전기기기·TV·VTR(85)	철강제품(73)	플라스틱제품(39)
중국	보일러·기계류(84)	전기기기·TV·VTR(85)	철강제품(73)	플라스틱제품(39)	철강(72)
일본	일반차량(87)	보일러·기계류(84)	광학의료정밀기기(90)	전기기기·TV·VTR(85)	고무류(40)

- (수출경합도) 대 중앙아 수출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4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3개 품목이 겹침

3. 대(對)중앙아시아(카작) 투자진출 현황(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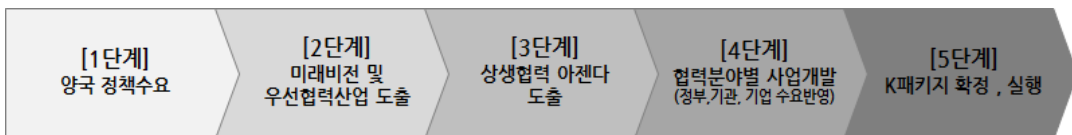
	국가별	대 중앙아(카작) 투자액(백만US\$)
1	네덜란드	6,088.5
2	미국	3,710.7
3	스위스	2,946.3
4	러시아	1,218.9
5	중국	1,082.7

- 네덜란드 등 투자 상위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원유 등 원자재 채굴 분야에 집중
-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투자액은 미미한 수준

부록

나. 한-카자흐스탄 상생협력 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카자흐스탄의 니즈와(수요측면)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카자흐스탄은 제조업을 육성하여 산업기반을 다각화하는 정책 추진**

* 전통산업과 신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산업화 전략 추진

카자흐스탄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에너지/인프라	농업 및 농식품	◆ 제조업 역량 강화 - 자원의존도 경감 및 산업다각화 측면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산업 수직계열화, 교통·물류분야 등
ICT	교통·물류	◆ 장기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 기술이전, 제도 구축

자료 : 각종 자료 종합

카자흐스탄의 권역별 협력 수요

국가	내용
CIS	-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수출증가 집중 - EAEU 내의 협력 심화와 가입국 확대 가능성
중국	- 일대일로 추진국으로서 철도 등 인프라 개발 협력 - 중국 제조업의 카자흐스탄 내 투자 강화 희망 - 자국 내 에너지 개발에서 중국기업의 역할 강화
터키	- 카자흐-터키 간 상호 교역 증대 - 카자흐스탄 건설 시장에서 터키 기업의 참여 확대
EU	EU 에너지 시장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가 수출 증대 * '18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최대 수출국은 이탈리아로 원자재 수출

**유라시아 시장 진출 핵심지역인 카자흐스탄으로 경제협력확대 추진 필요**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논의 분야)

(가) 인프라, 에너지, 기술 R&D, 보건·의료, 문화교류 등

카자흐스탄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에너지/인프라	농업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보유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세계 상위권
소비재(화장품)	ICT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II. 對카자흐스탄 협력과제

① [G2G] 양국 FTA 체결 등 통상·제도적 기반 마련

- (정책 수요) 최근 양국 간 정부부문에서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방안 의제 지속 논의
 - * ('18.4월) 양국 외교장관 면담에서 통상부문의 협력강화 합의, (2017년 6월) 한국 국회의장과 카작 하원의장 면담에서 경제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조
 - 카자흐스탄은 EAEU 가입국으로 경제협력체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 경제구조상 한국과 상호 보완적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며 EAEU 심화·확대 이후 한국과의 통상 협력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 수요) 양국 기업대상 우선협력분야 설문조사 결과, 교역확대가 최우선 순위로 선정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61개사)	교역확대 72%	제조업협력 31%	개발협력 25%
카자흐스탄(70개사)	교역확대 68%	제조업협력 39%	인적교류 29%

주 : 응답자 복수응답

자료 : 2019년 KOTRA 설문조사

- 한국기업은 수출확대 측면에서, 카자흐스탄 기업은 수입증가 측면에서 교역확대 협력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제조업 협력
- (협력 방안) 단기적으로 서비스·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정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상품분야 포함 포괄적 FTA 현실화
 - * 러시아와의 FTA 추진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협상 중이므로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러시아에 준용
 -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은 단기적으로 상품 시장 개방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수용 가능 분야 중심의 단계적·분야별 FTA 추진
 - 양자 간 제도마련에 대한 협의 본격화 이후 추세 대응 필요

② [B2B] 농업·스마트팜

- (카자흐스탄 수요)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 및 작물 다각화로 수출확대
 - 농업 부문의 생산성 확대와 제품 경쟁력을 갖춘 작물재배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고 수출잠재력 촉진
 - * 궁극적으로는 농산물 및 식품류의 대외수입을 축소하고 수출 증가 목표
 - 목초지와 사막이 많은 영토의 특성상 재배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환경의 조성에 관심

카자흐스탄의 농공단지 개발 프로그램

- 카작 정부는 '2017-2021년 카자흐스탄 농공단지 개발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 기간에 3조 1,198억 텡게 (약 86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여 농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역점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표는 2021년까지 ▲작물재배 생산성 40% 향상, ▲식료품 수출 6억 달러 증가, ▲식료품 수입 4억 달러 감소, ▲식료품 도매금액 29% 증가 등(각 2015년 대비 수치)

- (한국 강점) 농작물 생산성 향상·스마트팜 개발 등의 경험 풍부
 - 품종개량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개발 등에서 노하우 보유
 - *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등에서 시범마을 조성으로 농작물 생산성 향상 경험 풍부
 -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마련 이후, 농업분야에서 스마트팜의 본격적인 현장 확산을 추진하였고,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확대로 『정부투자 → 시장확대 → 산업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협력 방안) 한국의 집약적 영농기술·농업인력 개발 경험 전수 및 공동 R&D 생산, 농산물 상업화 및 기반시설 현대화 등 포괄적 협력체계 마련
 - 단독 진출보다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지 진출 모색
 - (참여주체) [카] 농업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 [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 주요 기업 등

③ [B2B] 소비재 유통: 화장품

- (카자흐스탄 수요)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비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며 한류 등의 영향으로 시장 내에서 한국산 인지도·점유 확대
 - 카자흐스탄의 화장품(HS3304) 수입규모는 2018년 약 6,000만 달러이며 한국산 수입규모는 2,000만 달러를 기록
 - *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유럽산 화장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나 품질이 좋은 한국산 화장품의 구매 확산
- (한국 강점) K-beauty의 영향으로 인터넷(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며 리뷰
 - * K-Beauty 주요 고객층의 경우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유행에 민감한 반면, 구매력이 뛰어나지 않은 20~30대 학생 및 직장인
 - 한국산 화장품은 뛰어난 품질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 천연재료에 기초한 성분(허브, 인삼, 녹차 등) 등으로 현지에서 높은 경쟁력 보유
- (추진 방향) 지속적인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로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수요가 큰 제품군을 중심 런칭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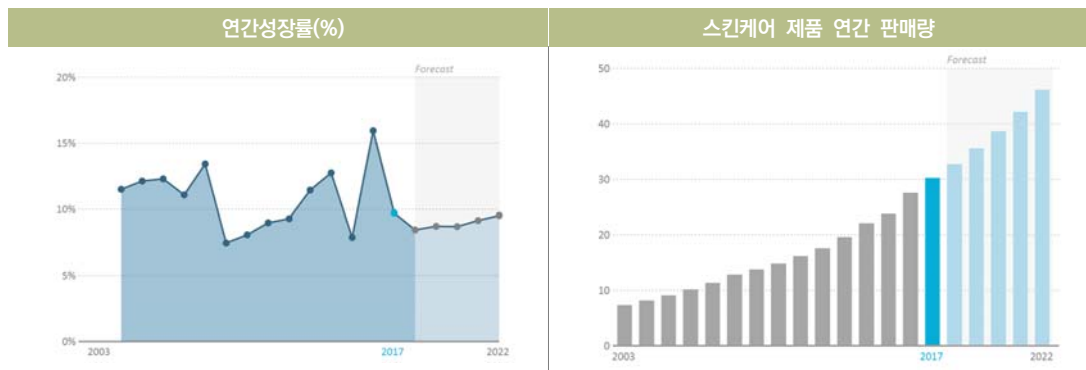
-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크고 현지 경쟁력이 있는 스킨케어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성분·기능을 포함한 제품 런칭
- 현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시회 또는 국내 각 기관에서 파견하는 무역사절단 참가를 통해 시장 내에서 인지도 향상 및 바이어 상담 지속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유망분야-스킨케어

◆ 카자흐스탄의 스킨케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 예상

- 스킨케어 시장과 색조화장품 시장은 약 4:6 정도로 스킨케어 시장의 비중이 작으나 지속적으로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이 더 가파르게 나타남.
- * 스킨케어 시장의 연간성장률(2003~2022)은 9.7%에 달하고 있으며 색조시장은 7.8%

카자흐스탄 스킨케어 시장



주 : 2017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 Passport, "Skin Care in Kazakhstan - Analysis," May, 2018.

- 카자흐스탄은 스킨케어 제품 사용문화가 미약하나 생활환경 개선, 브랜드 홍보지속 등으로 점차 스킨케어 제품 사용 증가
- * 특히, 인구 노령화 현상에 따라 안티에이지(anti-aging) 제품에 대한 관심 확대

◆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 스킨케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진 브랜드는 러시아 브랜드인 Cherny Zhenchug(8.2%)과 Chistaya Liniya(7.8%)이었으며 뒤를 이어 Avon, Mary Kay, Unilever 등의 제품이 차지
- 한국제품 판매는 K-Beauty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Nature Republic 등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진출 시사점

- 향후 수년간 스킨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기업은 현지 한류 분위기를 활용한 시장안착에 어느 때보다 적합한 환경
- 소득수준 확대에 따라 스킨 클렌징 디바이스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장선점을 위한 초기 진출 필요

④ [B2B] 에너지 신산업 : 태양광·풍력

- (시장 수요) 카자흐스탄은 원유·천연가스 중심의 화석연료 생산대국이나 정부는 점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 확대 추진
 -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50%로 확대 목표
 - * 카자흐스탄 자원개발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27%에 불과

카자흐스탄의 신재생에너지 성장 잠재력

- 전반적인 일조량이 높아 국토면적의 약 50%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하며 침켄트(Shimkent) 등 남부지방은 연간 일조시간이 2,500~3,000시간에 달해 잠재력 높음
- 북서부 지방과 카스피해 인근 스텝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여건 양호

- (한국 역량 및 협력 방향)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확대 필요성 대두
 - (태양광) 한국은 산업 전체 가치사슬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전력 연간 보급량은 1.2GW로(2017년 기준), 글로벌 랭킹 8위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강국
 - * 중국, 미국, 인도가 각각 53, 10.6, 9.1GW로 글로벌 1~3위에 해당
 - (풍력) 한국의 풍력발전 기업은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성장의 한계가 있으며 시장 확대를 통한 국산화율 향상과 제품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

한국 풍력발전기 제작사 설치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계
두산중공업	75 MW	18 MW	93 MW
효성	10 MW	-	10 MW
유니슨	26.1 MW	25.3 MW	51.4 MW
한진산업	-	4 MW	4 MW
계	111.1 MW	47.3 MW	158.4 MW

자료 : “2018 신재생에너지 백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2018, p. 472.

- (협력방향) 한-카 전략적 협력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전력수요 확대지역에 한국기업 전용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지 건설
 - * 제품의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현지산업화 및 제조업 수요에 대응

⑤ [B2G] 물류 인프라 개발협력

1) 협력 수요

- (정책 수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주요 협력국으로 자국 내 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 및 에너지 가공 수요 증가

- ‘일대일로’ 주요 협력국이자 자국의 ‘누를리 졸(Nurly Zhol)’ 인프라개발 정책으로 도로 및 철도, 공항건설 등 SOC 적극 투자 추진

카자흐스탄 주요 추진사업

경제특구의 물류 인프라 환경 개선, △호르고스(Khorgos)-악타우(Aktau) 철도 건설, △아스타나(Astana)-알마티(Almaty)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동-서,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한 물류 여건 개선에 초점

- 2019년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투자액은 4조 탱게(약 120억 달러)로 예상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협업수요 증가 예상

2) 협력 방안

- (협력 사전단계 강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사전단계 협력 강화
 - * 권위적인 중앙아 국가들의 특성상, 중요 사안의 경우 상위에서 결정되는 일이 다수
- IFC, EBRD, ADB, IsDB(이슬람개발은행), KDB(카자흐스탄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를 수시로 모니터링
 - * 카자흐스탄은 다자 개발기구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을 정부 입찰 프로젝트뿐 아니라 민간 부문 프로젝트 추진에 사용 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역량 있는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역량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

한국기업 진출사례

카자흐스탄 Almaty 시(市)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입찰에 참여한 SK건설은 현지화된 터키 건설사로 직영 기반 EPC 역량을 보유한 Alarko 사(社), 도로에 강점이 있으며 대형 PF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Makyol 사(社), 발주처의 까다로운 운영관리기준을 맞출 수 있는 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을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등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현지 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입찰 수주 성공

카자흐스탄의 교통인프라 시장현황

◆ 카자흐스탄의 교통인프라 산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 예상

- 교통인프라 산업은 2017년 이후 성장세가 약화되는 추세이나 2020년 이후 약 8% 가량의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카자흐스탄 교통인프라 부문 성장률 전망〉

구분	2017(e)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교통인프라	9.7	6.4	6.6	5.6	6.9	8.0	8.1	8.0
- 도로/교량	9.9	5.9	5.2	4.3	6.0	7.3	7.5	7.5
- 철도	8.5	8.7	13.2	11.3	10.6	10.9	10.4	10.1

자료 : Fitch Solutions, "Kazakhstan Infrastructure Report Q1, 2019," p.4.

- 2018년 이후 철도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에는 13.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도 2024년까지 10%대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호르고스(Khorgos)-악타우(Aktau) 철도루트 건설 추진

- 카자흐스탄 동쪽의 중국제품 수입관문인 호르고스와 카스피해 동편의 주요 항구인 악타우를 연결하여 코카서스 지역과의 물류연계 강화추진

〈호르고스-악타우 철도루트와 카스피해 연계 운송루트〉



자료 : Penton Consulting Private Limited

-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카스피해 연안의 물동량 확대를 대비한 국내 운송 인프라 강화와 악타우 항 현대화 등 물류·운송 여건 강화 추진

Ⅲ. 협력 거버넌스 모델

주요 협력 분야별 기회 및 Key Player 요약표

구분	협력방안	분야	관련 협력 기회	
			참여주체(한국)	참여주체(카자흐스탄)
			관련기관(한국)	관련기관(카자흐스탄)
			세부 추진 내용	
[카자흐스탄]				
6	{G2G} 양국 FTA 체결 등 통상-제도적 기반마련	통상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 연합회
			카자흐스탄이 가입한 EAEU 기반에서 양국간 FTA 추진, 한국의 EAEU 옵저버 가입 등 통상환경 개선 기반 마련	
7	[B2B] 농업부문 생산성 제고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촌진흥청	농업관련 연구소
			카자흐스탄 농업생산성 확대와 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시행으로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환경 구축	
8	[B2B] 스마트팜 일괄 시스템 진출	농업 (스마트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관련 기업 및 연구소
			카자흐스탄 내 스마트팜 일괄시스템의 전수를 위한 시장 조사 및 기업진출 가능성 타진	
9	[B2B] 한국 K-뷰티 소비자 현지진출	소비재 유통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경제부, 카자흐 상공회의소
			미샤, 토니몰리, 닥터자르트	Gradient, L'Etoile 등
			카자흐 내 K 뷰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합작하여 소비자 시장 진출 및 제품 공급 협력 가능	
10	[B2B] 태양광 산업협력	신재생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에너지개발부
			한화 큐셀, OCI	Samruk Energy
			카자흐 정부의 태양광 발전 육성정책에 조응하는 우리 기업의 태양광 진출 여건 타진 및 점진적 진출 확대 가능	
11	[B2B] 풍력에너지 산업협력	신재생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에너지개발부
			두산중공업, 효성, 유니슨	Samruk Energy
			현재 화석에너지의 풍력발전으로의 대체 단계 파악 및 협의를 통한 풍력발전 후보지 및 한국 풍력발전 전용단지 개발	
12	[B2G] 물류인프라 공동개발	물류· 인프라	국토교통부, KOTRA	교통인프라 산업부
			SK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철도청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되어 발주되는 카자흐스탄 내 철도, 도로 등의 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수주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선호	과장	알마티무역관	+7-727-222-3232	steven@kotra.or.kr

KOTRA자료 20-086

2020 국별 진출전략 카자흐스탄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32-3(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